틀을 깬 미술관, 예술이 되다

개관 8개월만에 3만명 방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을 가다

망원경 같은 외관 시선 집중
1층 김병종 작가 상설전시실
2층 기획전시실·갤러리 3
창 밖 지리산 풍경도 일품
화첩기행 북카페서 차 한잔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안에 자리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다.

'화첩기행'으로 유명한 한국화가 김병종(서울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작가는 지난해 말 광주시 문화예술상 허백련미술상을 수상했다. 인터뷰 도중 고향 남원에 자신의 이름을 따 문을 연 미술관 이야기가 나왔고, 그는 3월 개관 후 8개월여만에 3만여명이 다녀갔다며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김 작가는 미술관 건립이 확정된 후,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선 비슷한 느낌의 미술관·갤러리와는 차별화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완공일은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김 작가가 작은 것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가며 완성한 미술관은 '입소문'이 나며 명소가 됐다. 춘향의 고을로, '광한루'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미술관은 남원 방문의 '근사한' 이유가 됐고 나 역시 수년만에 다시 남원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겨울같지 않은 따스한 햇살이 비추던 지난 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을 찾았다. 춘향테마파크 안에 자리한 미술관은 외관부터 독특하다. 2층 규모의 노출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기하학적이다. 마치, 망원경 처럼 앞으로 툭 튀어 나온 2층 공간은 공중에 떠 있는 듯하고 미술관 입구까지 이어지는 계단식 공간도 흥미롭다. 지금은 겨울이라 물을 담아두지 않았지만, 자료사진을 보니 물에 반영된 미술관의 모습이 더 없이 아름답다.

미술관에 도착한 이들은 쉽사리 건물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다. 사진에 담고 싶은 모습이 너무 많아서다. 찍는 위치에 따라 미술관은 변화무쌍한 모습을 연출한다. 젊은 커플은 모델처럼 사진 찍기에 바빴고 경남 진주에서 미술관을 보기 위해 일부러 왔다는 부부 역시 미술관을 앵글에 담았다.

1층 갤러리 1은 김병종 작가의 상설전시실이다. 그의 대표작인 '바보 예수', '생명의 노래' 시리즈, '화첩기행' 원화와 친필원고 등의 자료를 전시중이며 작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11일부터는 김 작가의 에세이집 '자스민 어디로 가니?'(열림원 간) 원작 삽화를 전시중이다. 김 작가는 16년 동안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다 하늘로 떠난 강아지 자스민을 떠나 보내며 깨달은 사랑의 의미를 16점의 그림과 글에 담았다. 김 작가의 시선과 함께, "김교수 아저씨네 집에 온 지 10년이 되었어요. 10년이 뭔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이 작은 빵 위에 더 작은 촛부를 켜놓고 노래를 불러줬다"고 말하는 자스민의 시선이 교차하며 펼쳐지는 이야기와 그림은 애틋하고 따뜻하다. 관람객 중에는 이 그림들 앞에 한참 동안 머무는 이들이 많았다.

김병종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1갤러리 상설전시관에서는 현재 '자스민, 어디가' 원화 작품 등이 전시돼 있다.

김병종 작가가 기증한 책을 읽으며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화첩기행 카페'.

전시실에서는 '바보처럼 보일 만큼 착한' 예수를 담아낸 작품들과 1989년 연탄가스에 중독돼 생사를 헤매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시작한 '생명 시리즈', 가족의 모습을 담은 초기 인물화 등 다채로운 그림을 만날 수 있다.

2층에 자리한 갤러리 2는 기획전시실이다. 현재 열리고 있는 '찰나, 동행'전은 무용사진가 최영모, 공연 사진가 박상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연 아카이브 사진전으로 새처럼 날아오른 발레리노, 살풀이 춤을 추는 노년의 무용가,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의 30대 시절 사진 등이 눈길을 끌었다.

2층에는 멋진 공간이 숨겨져 있다. 갤러리 2 끝 유리창에 서면 건물밖의 전경이 그대로 보이고 비스듬히 열린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는 2층 나무 데크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풍경 역시 일품이다. 이 곳에 자리한 갤러리 3은 마치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어둠'을 컨셉으로 만든 기획전시실로 영상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엔 놓치지 말아야 할 공간이 있다. 전시실 뒤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으면 지리산 능선을 포함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전시 관람을 마치고 1층에 자리한 '화첩기행 북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마신다. 카페에서는 김병종 작가가 기증한 서적 중 전시도록, 문학, 인문, 관련 책과 다양한 출판사가 기증한 책을 편안히 읽을 수 있다. 목포 출신 극작가 김우진을 다룬 '화첩기행' 삽화 등이 전시된 공간에서 김 작가가 한국계 가수 '빅토르 최'를 찾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난 여정 등을 담은 '화첩기행 3:타향의 예술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다.

미술관이 자리한 춘향테마파크 안에는 남원항공우주천문대가, 인근에는 광한루가 자리하고 있다. 또 차로 20분 거리에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혼불문학관과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등장해 화제가 됐던 1930년대 '서도역' 풍경도 만날 수 있다. 입장료 무료.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관. 문의 063-620-5660.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드영미술관 31일까지 중견작가 12인 '연상'전

주성범 작 '은둔자의 성(城)-의식주'

화가들은 오랫동안 '자연'을 작품의 주제로 삼아왔다. 똑같은 자연을 눈에 담더라도 작가는 자신만의 또 다른 '눈'으로 작품을 완성한다. 자신의 삶과 생각과 경험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풍경은 작가의 인장(印章)이 된다.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이 오는 31일까지 기획전시 '연상(聯想)-하늘·바람·별·시…'전을 선보인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에는 김병모, 김재민, 박태후, 박주하, 백준선, 박은수, 주성범, 최대주, 허달용, 한부철, 한희원, 황순칠 작가 등 모두 12명이 참여해 대작들을 선보인다.

김병모 작가는 생동하는 겨울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추상 작품으로 선보이며 김재민 작가는 푸짐하게 차려진 '밥'을 소재로 따뜻한 온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박태후 작가의 '자연속으로'는 검고 푸른 산의 이미지를 겹겹이 쌓아올린 작품이며 백준선 작가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가 황홀한 화사한 봄날의 모습과 제주의 형제섬이 바라다보이는 바다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주성범 작가의 작품 '은둔자의 성(城)-의식주'와 '그의 도시' 두 작품은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했으며 최대주 작가는 '흰눈'을 통해 자작나무와 그 가지 위에서 지적이는 새의 모습을 담았다.

또 한희원 작가는 두터운 질감과 화려한 색채가 인상적인 '생의 시간'을, 한부철 작가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풍경을 장독대, 꽃과 나무, 사발 등으로 표현해냈다.

한편 드영미술관은 4월부터 올 한해 동안 40세 이하 지역 청년작가들을 초대해 '소소한 이야기전'을 릴레이 개최한다. 지난해 개관 초 때부터 청년 작가 지원을 약속해온 미술관은 1·2관 전관을 활용, 모두 2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5차례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참여 작가들은 '기다림'(김연호·김하슬·나지수·주대희), 일탈(조하늘·양세미·김성결·이다애), '일상'(강지수·윤준영·엄기준·김동아), '그리움'(성혜림·나수빈·박진아·조주희) '풍경'(박성완·고차분·이태희·최나래)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유산 3차원 입체프린팅 데이터 무료 개방

문화재청, 해남명량대첩비 등 1196점

'문정왕후어보'

해남명량대첩비, 문정왕후어보 등 문화유산의 3차원 입체프린팅 데이터가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상황을 대비해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국가문화유산 포털(heritage.go.kr)을 통해 무료로 개방한다. 3차원 입체 프린팅(이하 3D)은 프린터로 입체감 있는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들은 창덕궁, 임신서기석, 성덕대왕신종 등 모두 186건 1196점으로 3D 프린팅, 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한 유형들이 섞여 있다. 또한 국가문화유산 포털 검색을 통해 '한국의 세계유산', '교과서 속 문화재' 등 주제별, 문화재별 검색과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용량 데이터(100MB 이상)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 전자우편(pcsjsh@korea.kr)으로 제출하면 제공받을 수도 있다. 문의 042-481-4628. /박성천 기자 skypark@